

문화예술전문매거진 <THE MOVE>와 함께 하는

# 6월 BEST 공연



## 1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 공연예술마켓을 넘어 문화예술마켓으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김혜경)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현대자동차그룹, 제주MBC가 후원하는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 6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4일간 제주도 내 주요 공연장, 표선면 일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펼쳐진다.

2008년 공연 유통 활성화 및 문예회관 운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시작된 이 페스티벌은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간 교류 및 거래의 장인 아트마켓(부스전시, 쇼케이스), 국내외 문화예술계 이슈를 주제로 한 교류협력 네트워킹,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제주인(in)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기존 참가자 및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연예술 중심의 페스티벌이었던 동행사를 문화예술교육, 전시분야까지 포함

하여 문화예술 페스티벌로 확대했다. 또한, 모든 행사가 주요 일정 및 장소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집중적인 네트워킹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표선면 중심의 지역 밀착, 지역 집중화 페스티벌로 펼쳐진다.

'아트마켓'은 10~12일, 3일간 열린다. 10~12일에는 190여 개 공연·전시·예술교육 단체와 100



여 개 문예회관의 부스전시가 열리고, 11~12일에는 35개 단체의 쇼케이스가 마련된다. 7일 19시, 제주인(in) 페스티벌-프린지 초청작으로는 처음으로 해변음악회가 개최된다. 공연장을 벗어난 표선 해비치 해변무대에서 뮤지컬배우 최정원, 이건명, 박소연이 출연하는 '특별 뮤지컬 갈라'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8~15일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제주도 내 주요 공연장에서 4개의 초청작을 선보이고, 7~16일 표선면 일대 14곳에서 35개 단체가 70회의 프린지 공연을 펼친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19시부터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야외정원에서 펼쳐진다. 문체부, 제주도지사를 비롯하여 예술위 관계자 및 해외페스티벌 예술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의 히스토리를 담아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이희문, 하림, 박종화 등이 개막의 축포를 알린다. 이에 앞서 18시부터 진행되는 오프닝 공연으로 뮤지컬 만덕, 현대차그룹 대학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수상자, 유엔젤보이스 등이 축하무대를 선보인다. 개막 이틀 전인 8일, 18시부터는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주도민 및 페스티벌 참가자들을 위한 '전야제'가 열린다. 김도향, 뮤지컬 파가니니 갈라, 장필순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공식 누리집(<http://www.jhaf.or.kr>)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jejuhaevichartsfestival](http://www.facebook.com/jejuhaevichartsfestiv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DIMF), 영국 <웨딩 싱어>로 개막

13회를 맞이하는 DIMF는 6월 21일(금)~7월 8일(월), 18일간 대구 전역에서 펼쳐진다. 한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중국, 대만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수작(秀作)을 포함한 총 23개의 뮤지컬 작품과 '열린뮤지컬특강', '뮤빛밤(야외 뮤지컬 영화 상영회)'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다시 한번 대구를 뜨겁게 달구고자 한다. 특히 2017년 뮤지



컬 '더 라스트 키스'의 주인공으로 뮤지컬계에 첫발을 디딘 후 2018년 최대 화제작인 '웃는 남자'까지 접수하며 새로운 흥행수표로 떠오르고 있는 그룹 EXO의 리더 '수호'가 홍보대사로 함께해 최고의 화제 속에 출발하는 제13회 DIMF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 작품을 공개 하며 역대급 축제를 예고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 제13회 DIMF의 포문을 연다. 1998년 '아담 샌들러'와 '드류 베리모어'가 출연한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최근까지 흥행한 뮤지컬 '웨딩 싱어(영국)'는 신나는 복고풍 디스코 음악과 탄탄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개막작 사상 유례없는 13회 공연을 편성해 축제 중반까지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1964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토니상 9개 부문 수상 및 브로드웨이에서 무려 4차례나 리바이벌된 명작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러시아)'이 폐막작으로 무대에 오른다. 20세기 초 유대인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전통을 중시하는 아버지와 그 전통에 맞서는 딸들의 이야기를 러시아 혁명으로 불안정했던 시대적 상황과 오버랩 시킨 작품으로 세월을 거둬갈수록 강력해지는 고전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스페인의 역사 속 가장 유명한 여배우로 손꼽히는 '마리아 칼데로나'의 일생을 담은 '라 칼데로나(스페인)'와 뮤지컬 '이브 몽땅(프랑스)'은 그의 친누나 '리디아'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의 인생을 극작가이자 배우인 엘레나 아르덴(Hélène Arden)과 2명의 뮤지션이 따뜻하고 유머러스하

게 그려냈다. 한·중 합작 <청춘>(중국),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미스터리한 여인의 운명적인 사랑을 담아낸 '시간 속의 그녀(중국)'는 중국 유명 가수 '황서준(黃舒駿)'의 노래를 이용한 주크박스 뮤지컬로 중국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장은숙 감독이 안무를 맡았다. 'One Fine Day(대만)'는 불치병을 선고받고 이별을 앞둔 모녀가 삶의 마지막을 담담하게 풀어낸 작품이며 탄탄한 대본과 음악,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제12회 DIMF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한 '블루레인(한국)'이 1년간의 재정비를 거쳐 공식초청작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처럼 영화를 원작으로 한 무비컬, 라이브 디제잉을 선보일 힙합 뮤지컬, 고전의 힘을 보여줄 명작, 추억을 선사할 따뜻한 드라마, 그리고 트렌디한 스텔러까지 다양한 매력을 가진 8편의 공식초청작이 울여름 대구를 가득 채워간다.

### 3 '숨이 멎을 듯한 움직임, 화려하게 펼쳐지는 다양한 댄스의 향연' 전세계를 매혹 시킨 무대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공동주최: 번더플로어코리아(주), 서울예술기획(주))가 7월 2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1999년에 초연된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는 이후 미국, 유럽, 호주 등 50개 국가, 180개 도시 이상에서 공연되었고,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번더플로어>는 2002년 일본 초연 시 무려 8만 명을 동원 일본전체 흥행 1위, 오사카 공연 티켓오픈 5시간 만에 전석이 매진, 전미 흥행 2위의 경이적 기록을 세우며 세계적인 공연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특히, 2009년 경제불황 속에서도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연장 공연을 기록하며 흥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세계 최고 기량의 댄서들로 이루어진 막강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번더플로어>는 더욱 세밀하고

완벽해진 구성과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음악을 접목해 한층 더 세련된 무대를 선보일 전망이다. <번더플로어>에서는 살사, 탱고, 자이브, 왈츠 등 대표적인 스포츠 댄스 장르들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특히, 이번 투어부터는 '한번 추면 연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섹시하기로 유명한 바차타 장르가 추가 된다. 바차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유래한 전통 음악으로 커플 춤 종류의 하나이면서 손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 살사나 차차와는 달리 손과 몸으로 신호를 주고 받아 더욱 관능적으로 비춰진다.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는 오는 6월 25일부터 26일 울산 현대예술관 공연을 시작으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공연을 선 보인 후 7월 2일부터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7월 17일부터 18일 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구오페라하우스 오는 4월 16일(화) 1차 티켓이 오픈 될 예정이며, 5월 6일까지 조기예매 시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YES24 티켓, 하나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 4 화합과 평화를 위한 연주회 <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국립합창단 기획 공연

국립합창단은 모든 이들이 함께 합창을 즐길 수 있도록 화합과 평화를 위한 연주회를 강진군과 함께 준비했다. 민족의 서정 가객 김소월과 한국 순수 서정시의 대표주자인 김영랑의 아름다운 시어들을 엮어 작곡한 창작곡으로 6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이번 연주회는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이명주, 젊은 소리꾼 고영열이 함께하며 코리아콰르텟 그리고 황수경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해설이 함께한다. 또한,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낭송과 김영랑 소개영상까지 다양하게 준비하여 평소

클래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던 사람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지난 3월에 올린 창작칸타타 <동방의 빛>을 이을 2019년 2번째 기획 공연으로 국립단체로서 합창음악의 저변을 넓히고자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석 초대(무료공연)로 준비했다. 공연예약은 국립합창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예약기간은 2019년 5월 20일(월)~부터 6월 16(일)까지이다.

## 5 장르의 틀을 깬 새로운 무대가 주는 독특한 감동 성남문화재단 <2019 마스터즈 시리즈>

성남문화재단은 저명한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화제작을 만나는 <2019 마스터즈 시리즈>를 선보인다. 장르의 틀을 깨고 실험성이 돋보이는 융복합 공연부터 영유아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 현대무용 공연 등 개성 넘치는 4편의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독특한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2019 마스터즈 시리즈>의 첫 작품 <안티고네>, 두 번째 작품 어린이를 위한 베스트 공연 <퍼즐>에 이어 세 번째 공연은 뿔마루무용단 사계의 연작 시리즈 중 하나인 <해변의 남자>다. 6월 5일(수)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지는 <해변의 남

자>는 1996년 초연 이후 무용단의 레퍼토리 중 최다 공연 기록을 가진 작품으로, 14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유쾌한 여름 이야기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현대 남성들의 고단한 내면세계를 코믹하면서도 이색적인 상황으로 보여주며,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은 선보인다.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색채의 작품이라는 호평과 함께 애틀랜타 올림픽 초청작이기도 한 <해변의 남자>는 익숙한 음악과 일상적인 에피소드로 관객들에게 유쾌하게 다가서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와 예술성을 전한다.

<마스터즈 시리즈>의 마지막은 4명의 안무가로 구성된 복합무용공연 <자아도취>가 장식한다.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발레 등 여러 장르의 무용과 의상 디자인이 만난 이색적인 융복합 공연으로 4명의 예술가들이 6월 8일(토)과 9일(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각각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무대를 펼친다.



고시계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예술전문지  
THE MOVE 와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공연 및 더무브 구독 문의: 02.523.7356